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Life History Research Based Private Documentation

최 인 혁 (In Hyeok Choi)**

이 영 학 (Young Hak Lee)***

목 차

- | | |
|----------------------------|----------------------------|
| 1. 서론 | 4. 생애사 연구방법을 반영한 개인 기록화 방안 |
| 2.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연구의 관계 | 5. 결론 |
| 3. 개인 기록화 적용을 위한 생애사 연구 탐구 | |

<초 록>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즉 개인이 생산한 개인 기록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흩어진 개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록물이 가진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한 개인 기록물의 가치는 사회 구성원인 개인과 사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에 앞서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기록물의 생산 주체인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사 연구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개인 기록화에 적용하는 것은 생애에 바탕을 둔 개인 기록물의 가치 분석을 통해 올바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 간의 관계를 밝혀 개인 기록화의 필요성과 개인 기록화를 위한 심층적인 생애사 연구의 중요성을 연구한다. 또한 생애사 연구의 구성과 특성을 통해 기록학의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개인 기록화의 바탕을 마련한다.

주제어: 개인 기록화, 생애사, 생애사 연구, 개인 기록물

<ABSTRACT>

The personal history of individuals directly and vividly reflects the courses of their life and the society of which they are a part. It has become a meaningful part of the social landscape today to pursue efforts to understand humans and humanity correctly and properly through the windows of private records. Notably, the significance of keeping private recor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ociety of which they are a part lies in the fact that they cooperate to build a foundation on which they can prosper together. One of necessary things to be done to fully appreciate the values of such private records is to perform serious analyses on particular individuals who are behind those records. Developing and refining methods of life history research such as time-line interviews exert positive influence in setting up a direction for private documentation systems where private records are collected and maintained.

Keywords: Private Documentation, Life History Research, personal history, private records

* 본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기술보증기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cih-2000@hanmail.net) (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youhlee@hanmail.net) (교신저자)

■ 접수일: 2015년 10월 22일 ■ 최초심사일: 2015년 10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26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49-76,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4.049>>

1. 서론

인간이 생산한 기록물에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의미와 다채로운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기록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담은 개인 기록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인 기록물에 담긴 삶의 개별적 내용은 개인의 특수성과 함께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시간에 따른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개인에 의해 생산되고 생산된 기록물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김혜립, 2010, p. 24). 따라서 개인 기록물이 담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 개인 기록물을 오래 지속하고자 하는 가치 인식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기록물의 가치가 있다.

공공 기록물과 달리 개인 기록물은 개인이 생산 및 수집하고 개인적인 삶과 흐름, 인격을 담고 있는 비조직적이고 비정기적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개인 기록물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필요성 인식과 생산 주체인 개인의 생애 연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이야기가 가지는 공공의 의미를 시간 배경 속에서 찾는 것에 의미가 있다(김영천, 한광웅, 2012, p. 13). 또한 개인의 삶을 분석하여 주요 사건, 개인과 연결된 당시의 사회적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김진용, 2013, p. 84). 따라서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삶의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변화하는 사회적 경험, 역할, 지위, 신분 등은 개인화의 표현이자 사회화의 내용을 보여준다.'는 베저와 레크먼(Berger & Luckmann)의 주장은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불가분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이희영, 2005, p. 130). 이는 기록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개인을 이해하여 개인 기록물에 담긴 개인과 사회의 관계, 다양한 양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학 영역에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 기록물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준다. 더불어 개인의 가치, 개인의 삶을 담고 있는 기록물을 관리, 보존하기 위한 바탕을 형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록화의 의미를 토대로 개인 기록화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개인 기록화는 개인이 지향한 가치 그대로를 담고 있는 개인 기록물이 무엇인지 판단 및 수집하여 이를 관리, 보존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애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인 기록화의 이론적 근거는 한스 봄스가 주장하는 개인 기록물의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발생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동시대인이 생각하는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 의미를 통해 기록물의 선별과 수집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대인이 생각하는 것, 그 의미는 개인 기록물에 담겨 있다. 개인 기록물 연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함께 여러 개인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대인의 의견이나 생각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한스 봄스의 입장을 개인 기

록물 인식의 중요성과 개인 기록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구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기록학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인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이 남긴 기록물을 수집, 관리, 보존하기 위한 개인 기록화가 중요하고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체계적인 개인 기록물의 수집,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개인 기록화의 방향 설정을 통해 사회 발전의 인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연구의 관계

2.1 개인 기록물의 가치

개인 기록물¹⁾에는 개인의 삶이자 생애가 담겨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즉, 어떠한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닌 관점, 판단, 감정 등이 함축되어 담겨 있다. 여기에서 개인 기록물에 담긴 사실과 함께 개인이 왜 그러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개인은 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기관에 의한 주도적인 기록관리체

제 형성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면서 공공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에 개인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전자 환경의 도래, 정보의 증가와 접근성의 향상,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 등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고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또한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개인 기록물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 기록물의 영역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과 가치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개인 기록물을 있는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개인의 가치관과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 기록물의 가치는 개인 기록물이 그 자체로 지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개인 기록물에 담긴 개인과 사회가 갖는 '관계'이다. 그러한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추후 전개할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와의 관계, 생애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인 기록화의 방향 제시가 가능하다.

개인 기록물의 가치 이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였는지, 개인이 바라보는 사회의 변화 양상은 어떠하였는지 등 다양한 시

1) 본 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기록물의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회적 구성원인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수성과 함께 사회와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가치관, 경험을 담아 주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이라고 정의한다.

각과 현상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수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의견 소통과 합의를 통해 체계를 갖추고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교환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 개인은 개인 기록물을 통해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고 여러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개인의 생각이 반영된 개인 기록물은 사회가 발전되고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사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전자 환경의 조성과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나'의 생각과 흔적을 남기려는 활동과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와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의 생각,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개인 기록물이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대다수의 보통 사람에 대한 관심은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또 공감함을 통한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의미있게 살아 갈 수 있는 자신감과 정신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개인 기록물이 지니는 가치는 하나의 용어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 기록물이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록물의 목적과 의도가 다양할 때이기 때문이다(최영주, 2005, p. 25). 또 개인 기록물에는 법과 규정, 눈에 보이지 않는 연산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김혜립, 2010, p. 14). 컴퓨터 등 전자기기

나 정형화된 시스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총체적으로 연결된 인간의 삶을 느낄 수 있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 기록물의 가치가 모든 개인 기록물에 반드시 담겨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치있는 개인 기록물을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2.2 생애사 연구의 의미와 가치

2.2.1 사회학에서 생애사 연구의 의미

사회학은 사회 그 자체, 제도, 사회 현상, 사회 구조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중에서 근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다.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각각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들이다(권태환, 설동훈, 홍두승, 2010, p. 2). 즉,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과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탐구한다. 사회학에서 생애사 연구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근본인 인간을 중요한 축으로 정하여 현상과 의미를 분석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생애사 연구에 대한 의미를 고려하여 사회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에 대한 탐구를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베버는 인간이 가지는 관념과 가치는 경제적인 조건만큼이나 사회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권태환, 설동훈, 홍두승, 2010, p. 29). 사회학에서는 사회라는 커다란 대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탐

구하기 위해 근저의 인간을 중점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가지는 것은 자신 즉,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의 사회상, 사회구조의 모습을 나타낸다. 사회가 가지는 하나의 대표성은 인간과 더불어 내부의 다양한 특성과 의견이 소통하고 교환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위해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인간을 파악하고 사회와의 상호 연관을 탐구하고자 했다.

또 하나는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상호작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짐멜은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연구영역을 갖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사회학의 고유한 연구대상(권태환, 설동훈, 홍두승, 2010, p. 30)이라고 언급했다. 사회학은 사회 속에서 혹은 다른 사회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의미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한다. 즉, 인간과 사회라는 두 대상의 관계를 연구하여 의미를 찾는 연구방법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사회학은 인간과 사회라는 두 대상의 불가분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사고(思考)하는 존재인 인간의 행동을 사회학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덧붙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사회학은 인간이 가지는 삶의 가치를 사회적 시간 배경 속에서 찾고자 하는 생애사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가치와 행동에 관심을 두고 인간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탐구

를 지속하고 있다. 사회학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 중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학에서의 생애사 연구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과 구조, 인식, 역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를 해석할 수 있도록 풍부한 연구의 바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2.2.2 교육학에서 생애사 연구의 의미

교육학에서 교육의 의미는 도덕, 문화, 자연, 사회, 종교 등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교육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의미이다. 교육학에서 생애사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과 집단이 살아온 삶 속에 경험, 성장, 변화라는 교육학의 핵심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형숙, 문지원, 2012, p. 75).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의 구조와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생활인의 역할을 다할 때 의미를 갖는다(김범준, 구병두, 2007, p. 24).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환경과 접촉하며 경험이 생기고 이를 토대로 경험을 재구성하여 교육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박성희, 2011, p. 210). 교육학에서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발달이라는 체계적인 분석과 다각적인 관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형숙, 문지원, 2012, p. 77).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져야 한다. 교사(가르치는 사람), 학습자(피교육자, 배우는 사람), 교육내용이 있어야 가능하다(김범준, 구병두, 2012, pp. 24-26). 교사와 학습자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는 교육내용이라는 유무형의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의 가치관과 교육관, 배우는 사람의 생각과 자세, 교육내용이라는 삼박자가 균형을 이룰 때 위에서 언급한 교육의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사람의 가치관과 자세, 지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교육학에서는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과 교육관을 가져야 하는가,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적 존재로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격의 특성을 인지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주체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등 사람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찾아내고 연구되고 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근본이 될 때 사회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연구할 수 있다. 많은 교육과 관련한 연구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다. 그 관점은 사람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학에서의 생애사 연구의 의의(박성희, 2008, p. 5)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생애사적 맥락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생애사를 통해 확인한 자기주도적 성장의 잠재력을 발견한다. 셋째, 지나온 삶의 재구성성을 통해 또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이 세 가지의 의의는 가르치고 배우는 두 주체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생애사를 연구하게 된다 면 얻게 되는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주체와 더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치관을 정립하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학

은 그 목적을 위해 사람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교사와 교육관, 학습자, 보다 나은 교수 방법과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애사 연구를 통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 교육학에서 생애사 연구는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주체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교육학 연구에 있어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통해 저변을 확대 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3 기록학의 관점을 반영한 생애사 연구의 의미

생애사 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록물을 남겨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세기 전까지 기록물의 양은 많지 않았다. 남기고자 한 모든 기록물을 보존하여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경제적 여건이 가능한 시기였다. 하지만 20세기 초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전자 환경의 도래, 접근 가능한 정보의 급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기록물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무엇이 가치 있는 기록물이며 어떠한 기록물을 선별하고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기록물 평가이론과 방법론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기록학에서 논의하는 어떠한 기록물이 가치 있는 기록물인가,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과 다양한 가치, 생각의 존중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생애사 연구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먼저 기록물의 범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앞서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록학 영역에서는 크게 공공 기록물

과 이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민간 기록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기록물 속에 포함된 범주로 사적 혹은 개인 기록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개인이 관련된 혹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을 개인 기록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공 기록물과 개인 기록물은 생산되는 환경과 상황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현재까지 진행된 대다수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이론은 개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공공 기록물이 주된 대상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 기록물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 및 선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을 기록화 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기록화 하려는 대상에 대한 분석이다. 그 대상이 사회적 사건이나 공공의 조직에서 사람, 개인으로 변화된 것이다. 개인 기록물은 수많은 평가 모형의 기초가 된 정부 기록물이나 행정 기록물과 다르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는 개인 기록물을 다른 개념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Catherine, 2001, p. 128). 대상이나 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없다면 연구의 질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개인 기록물 속에 담긴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생산 주체 혹은 수집 주체인 개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삶의 흐름에서 기록물이 만들어졌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물에 담긴 의미

와 생각의 변화는 어떠한지 등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록물이 가지는 특성은 개인 기록물도 함께 공유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을 이해하고 그 속에 내포된 개인 기록물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생애사 연구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시간을 축으로 하여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다(김영천, 한광웅, 2012, p. 13). 인과 관계, 시간적 흐름 등을 포함한 인생 전체를 하나의 맥락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와 갖는 관계,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특성과 조응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한경혜, 2005, p. 16). 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생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사 연구의 대상에 대한 인간성²⁾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가치 있는 개인 기록물을 남기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인 기록물에 담긴 개인의 생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는 삶의 분석을 바탕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과 관련한 주요 사건의 파악, 기록물의 총체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할 시 원천으로 작용한다(김혜림, 2010, p. 78). 이러한 생애사 연구의 바탕은 개인의 삶과 개인 기록물의 가치에 근거하여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록화 전략의 구체적 단계인 기록화 범위 설정, 기록물 조사 및 수집 계획 수립으로 이어져

2) 사람의 본성이라는 의미로 맥락상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와 심리적 느낌을 가리킨다.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이 가능한 의미있는 기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2.3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의 관계 정립

개인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경험이나 사실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맥락, 관계, 인간화라는 특성이 말해주듯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역사적 흐름과 함께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동성, 2013, p. 48). 사회 변동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미시적으로 개인을 변화시켜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내는지, 하나의 매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생애사 연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한경혜, 2005, p. 28).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 기록물에 담긴 사회의 변화 양상, 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상호 주고 받은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생애사 연구를 적용한 개인 기록물 연구는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그의 행동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와 자신의 생각을 사회에 반영하고 투영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의 생각을 나누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 기록물을 통해 가치관을 표현하고 사회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나와 같은 생각, 자신과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만족감과 삶의 자신감을 향유할 수 있다. 생애사 연구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지로 개인 기록물도 개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되어 가는 사회의 양상과 흐름을 다양한 시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두 대상은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개인 기록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록화하려는 대상인 개인을 깊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 생애사 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사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록화 대상에 관한 사실 관계, 다양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초점은 생애사 연구가 개인의 삶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기록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정보와 내용이 담긴 기록물이 나타내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생애사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록물이 갖는 논리적 질서, 생산 주체, 생산 환경 등 개인 기록물을 둘러싼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생애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생애사 연구를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개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하자면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는 커다란 시간적 흐름 속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와 개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인 것이다. 그리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을 제공하고 기록의 가치를 확인 및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개인 기록화가 개인의 가치를 사회 속에 지속해 갈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개인 기록화 적용을 위한 생애사 연구 탐구

3.1 생애사 연구의 구성요소를 통한 개인 기록물 파악

3.1.1 시간의 분석단위를 통한 기록물 추적과 수집

생애는 살아있는 한 평생의 기간³⁾이라는 의미이다. 시간이라는 분석 단위는 생애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선후관계, 인과(因果), 전체적인 흐름 등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생애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사람의 일생이 연령에 의해 나누어져 각각의 역할이 전이(轉移)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회적으로 구조화 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한경혜, 2005, p. 16). 여기에서 연령이라는 시간을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개인의 삶은 사회 속에서 느끼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시간, 역사적, 사회적 시간이라는 기준을 두고 함께 이해하는 것이 생애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세대로 6.25전쟁 이후 급격

하게 증가한 인구이다. 그리고 1970, 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역인 현재의 50-60대를 지칭⁴⁾하는 용어이다. 이 세대에 속한 생애사 연구 대상의 출생 시기와 시간적 흐름을 이해한다면 그 생애사 연구 대상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을 분석 단위로 파악하면 구체적인 생애사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생애사에서 시간은 삶에서 일정한 흐름과 성격을 갖는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기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유철인, 1998, pp. 186-187). 명성황후의 생애⁵⁾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의 생애사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적 흐름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개인의 삶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생애사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대상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 대상의 행동, 특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간을 통해 생애를 이해하는 목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적인 맥락과 경험을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데 있다(이동성, 2013, p. 82). 더불어 삶의 선택과 의사결정, 사회구조 내의 위치와 상호작용이 삶에 어

3)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 <http://www.mk.co.kr/>, 매일경제 용어 사전

5) 명성황후는 1851년 경기도 여주에서 출생하여 1895년 을미사변으로 사망했다. 전체 생애는 1851년-1858년, 1859년-1866년, 1867년-1895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8세에 부친이 사망하고 가문과 흥선대원군의 도움으로 한양으로 가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두 번째는 한양(서울 감고당)에서 생활하는 시기로 고종의 비로 간택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왕비로서 생활하게 된 시기로 을미사변으로 사망하기까지이다. 그리고 각 시기는 세도정치, 개화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진 시기였다.

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다(한경혜, 2005, p. 13). 결과적으로 생애의 시간적 구분,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기록물을 예상하고 기록물을 추적 및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3.1.2 전환점을 통한 개인의 변화 양상 파악

생애사 연구방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는 전환점이다. 전환점이란 삶의 궤적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를 의미한다(이동성, 2013, p. 84). 이는 앞에서 설명한 분석단위인 시간과도 관련이 있다. 전체 삶에서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전환점은 삶의 구간을 구분하는 지표인 것이다. 이러한 전환점을 설정하는 기준은 특정 시간이나 공간, 삶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생애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이나 행동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명성황후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전환점인 것이다. 첫 번째(1851년-1858년)와 두 번째(1859년-1866년) 시기의 전환점은 부친 민치록의 사망과 여주에서 한양으로 삶의 공간이 변화되는 두 가지 계기가 연속해 작용한 것이다. 어린 시절 부친의 사망으로 가세(家世)가 완전히 기울게 되어 이전의 생활양식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여주에서 한양으로 생활공간의 이동은 삶의 방식이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1867년-1895년) 시기를 구분하는 전환점은 조선 시대 양반의 신분에서 왕비 간택으로 입궁하게 되는 계기로 이는 신

분의 변화와 공간의 이동이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이다. 양반에서 왕비로의 신분 상승은 생활 환경, 행동, 가치관 등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생애에서 나타나는 전환점은 변화된 삶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다(이동성, 2013, p. 84). 이것은 개인의 삶이 사회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생애 구분의 기준이 되는 전환점은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여러 변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애에서 각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기록물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기록물에 담긴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수용 과정, 행동 변화 양상 등을 이해할 수 있다.

3.1.3 영역을 통한 개인의 다각적인 이해

생애사 연구방법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영역이다. 영역은 전체 생애를 몇 가지 차원 혹은 측면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한경혜, 2005, p. 85). 이것은 삶에 영향을 준 주된 원동력을 이해하기 위한 범주를 제공하게 된다. 즉,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생애를 이해하는 것은 생애 전체의 흐름과 생애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이나 행동, 가치관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전환점을 기준으로 영역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환점은 전체적인 삶의 흐름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결정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한편, 영역은 연구 대상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시간, 공간, 사건 등의 전환점을 기준으로 영역이 나누어진다면 이해가 쉽고 생애

분석이 수월해질 수 있다. 반면, 영역을 나누는 지표는 시공간이나 사건 등 특정한 계기와 함께 지나온 경험의 누적 등 다른 요소도 가능하다.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전환점보다 넓은 범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전환점과 영역을 통해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환점은 전체 생애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계기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역은 개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삶에 나타난 여러 양상을 비교할 수 있다. 전환점과 영역이라는 요소를 통해 생애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1.4 적응을 통한 관계 이해와 기록물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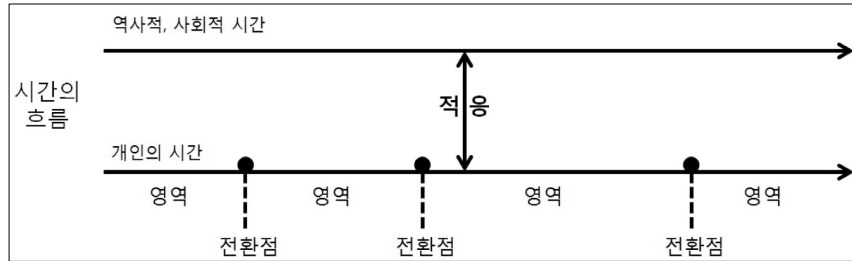
생애사 연구방법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적응이다. 적응은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적응양식(한경혜, 2005, p. 15)을 말한다.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자세 중 하나는 사회나 조직의 문화와 양식을 적절히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절히' 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자신의 개성만을 내세우거나 반대로 조건 없이 따르기만 한다면 개인과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모두 옳바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의 문화와 양식을 따르되 경우에 따라서 의견 개진과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적응이라는 구성요소 속에 내포된 의미이다.

적응이라는 개념은 삶을 지속해 가는 속에 겪게 되는 많은 변화와 자신이 지켜나가는 고유하고 연속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개인에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개인은 이러한 상황과

삶을 어떻게 조합하고 지속해 나가며 살아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통해 이해하자면 명성황후는 조선 시대 여성으로 살다 고종의 왕비로서 궁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살던 생활양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상황이다. 왕비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함께 어머니(한창부부인 이씨)와 양오라비(민승호)를 불의의 사고로 비명에 잃게 되어 불안한 생활을 지속했다(이민원, 2007, p. 707). 그리고 아침에 늦게 기상하고 새벽 늦게까지 일했다(이기대, 2007, p. 83)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왕비의 생활과는 달랐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왕비로 변화된 자신의 입장을 수용하고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 정치적 불안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적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통상적인 왕비의 생활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물 탐색에 있어 개인의 행동이 변화하게 된 원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변화 과정 속에서도 타협과 절충을 통해 개인 지키고자 한 가치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담은 개인 기록물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수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삶의 과정을 담은 개인 기록물의 수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적응을 통해 파악한 기록물을 모아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관찰하고자 한 가치관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기록물의 관계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그림 1〉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

위의 〈그림 1〉은 지금까지 설명한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도식화한 것이다. 생애사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시간과 개인의 시간이라는 두 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시간 즉, 생애를 바탕으로 전환점, 영역, 적응의 개념을 설정한다. 생애에 나타난 다양한 변화의 계기를 찾을 수 있는 전환점과 생애를 입체적인 변화와 상황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영역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영역을 나누는 기준은 전환점을 포함한다.

영역을 나누는 기준과 전환점이 동일하다면 생애를 파악하는데 수월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영역의 기준과 전환점을 동일하게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애 흐름에 따라 영역과 전환점의 의미를 명확하게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역의 기준과 전환점의 설정은 생애의 흐름, 전개과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사실,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생애에서 변화의 원인, 환경을 추론할 수 있고 개인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적응은 역사적, 사회적 시간의 축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 간직하고자 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

금까지 살펴본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는 분석적 개념의 틀로 명확하게 각각의 개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Mandelmaum, D. G., 1973, p. 177; 이동성, 2013, pp. 84-85). 가이드라인(Guide-line)의 성격으로 상호보완적이고 복합적인 적용이 필요한 분석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를 통한 분석은 개인이 어떠한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게 되었는지, 개인 기록물에 담긴 내용을 추론하여 발견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각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기록물을 탐구한다면 그 속에 담긴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

3.2 생애사 연구 특성과 개인 기록화를 위한 유용성

3.2.1 맥락 -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 이해

생애사 연구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어떠한 삶의 궤적을 걸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특성이 나타난다(유철인, 1998, pp. 187-188).⁶⁾ 다시 말해, 생애사 연구방법은 삶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외

적 변화의 양상과 상호 관계를 시간의 축으로 살펴보는 맥락의 특성을 가진다(이동성, 2013, p. 79).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사회적 영향, 여러 선택에 있어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했는지에 대한 시기와 전후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맥락의 특성은 시간적 변화나 흐름 또는 인과관계, 전후관계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시간을 기본적인 분석 단위로 하는 것과 함께 영역이라는 구성요소가 맥락의 특성을 담고 있다. 자신의 경험 등으로 인한 가치관 및 성격의 변화, 사회적·환경적 변화로 인한 행동 양식의 변화는 인과관계, 전후관계라는 양상을 보인다. 원인과 영향, 앞서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여 개인의 행동과 가치관이 어떠한 양태를 보여 왔는지,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어떠한지 맥락의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를 포함한 개인과 환경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사 연구의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다.

시간적 흐름과 조응하는 생애사 연구의 맥락은 개인 기록물을 연구 및 분석하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삶을 확인하고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 경험한 역사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각 개인마다 받은 영향과 해석, 수용의 양상 및 내용은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조건 속에 개인의 삶의 맥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개인 기록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유철인, 1998, pp. 187-188). 맥

락은 시간의 축이라는 큰 흐름을 따라 개인의 생애를 이해하고 삶에 무엇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였는지 거시적인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애사 연구방법의 특징이다.

3.2.2 관계 - 개인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상호관계

생애사 연구에서 말하는 관계의 특성은 인간의 행위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이동성, 2013, p. 80)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영향을 통해 이루어진 신념이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삶을 영위하면서 이루어진 수많은 선택과 실천,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그 개인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인 적응의 개념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고 다양한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 개인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방법은 개인의 삶을 연구하는 것으로, 개인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밝히고 인식하는 방법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관계는 두 가지 이상의 주체 사이에서 찾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맥락 더불어 관계라는 특성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개인 기록물에 나타난 개인의 생각, 그 생각을 가지기까지 개인에 영향을 준

6)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이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생애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여러 요인과 사회문화적 환경이무엇인지 등 관계를 반영한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기록물 사이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가치의 발견은 한 단계 심화된 기록물의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연구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관계의 특성은 생애사 연구자와 연구의 대상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두 주체간의 관계가 동등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실질적인 생애사 연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구술면담과 기록물을 통해 생애를 연구할 때, 그 대상을 단순히 연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면담이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선입견, 고정된 시선은 반드시 경계해야하는 연구자의 자세가 요구된다. 연구자가 임의로 생애사 연구대상에 대한 정보, 기록물을 배제(김영천, 한광웅, 2012, pp. 25-26)하거나 논리적 근거 없이 연구자의 일방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질과 함께 연구 자체의 의미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관계 설정이 미약한 생애사 연구는 연구대상인 개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를 잃은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대상이 지닌 가치관, 객관적인 현상과 사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명확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2.3 인간화 - 개인의 가치와 행동 이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생애사 연구방법의 특성은 인간화이다. 인간화는 생애사 연구가 사람의 가치와 행동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

인 만큼 생애사 연구 자체는 인간이 가지는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생애사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본주의의 전통을 내세우고 사회적 행위의 주체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주변화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김영천, 한광웅, 2012, p. 80)고 한다. 이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인간의 삶에 대한 공감감이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을 발견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애사 연구는 각각의 인간이 경험한 개별적인 현상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사회구조의 일반성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다(이희영, 2005, p. 133). 인간이 가진 가치와 행동을 반영하는 사회적 의미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간의 개별적인 주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바를 탐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간화의 특성은 개인 기록물이 가지는 가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느끼고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공감대와 가치관을 개인 기록물이 담고 있다. 컴퓨터나 전자적인 시스템은 주어진 값과 설정된 연산 과정을 토대로 결과를 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고 생각한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개인 기록물에 담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록의 가치로 이끌어 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인과 또 다른 개인이 주고받은 편지글을 연구한다고 가정하자. 시스템이나 전산도구로 편지글의 내용, 수·발신일자, 수·

발신인 등은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개인의 감정, 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 당시의 상황은 이 편지글을 연구하는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애사 연구를 시스템이나 전산 도구로 실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인간 본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생애사 연구방법이 지니는 맥락, 관계, 인간화의 특성은 개인 기록물 평가하고 선별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생각하는 기준은 개인 기록물의 물리적 형태, 보존 방법에 대한 고려사항은 논외하기로 한다. 가장 먼저 가치 있는 개인 기록물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삶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내·외적 변화의 양상과 상호 관계를 시간이라는 배경을 통해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기록물 그 자체의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나 현상과 관련해 제3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맥락과 관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 기록물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사회의 변화양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사회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개인 기록물에 담긴 개인의 삶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발견한 변화양상을 토대로 가치를 나타내어 사회에서 여러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고 공론으로 형성된다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개인 기록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계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기록화에는 기록화하려는 대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아키비스트가 참여한다. 이것은 기록화하려는 여러 주체들의 이해(利害) 관계와 기록물의 가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체계적인 기록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관계자들과 기록화 대상 간의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기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록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자들이 기록화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기록화 대상의 미화 의도를 가지게 되면 잘못된 기록화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 기록화 과정에서 기록화 추진의 주체와 기록화 대상 간에 동등하고 실제적인 관계 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계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 기록화를 통한 다양한 가치를 사회적 구성원, 즉 이용자들이 접하고 인식하기 위한 것에 있다. 기록화 실행 주체와 기록화 대상의 잘못된 관계 설정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와 함께 이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록화의 결과를 가져온다. 다양한 주체들의 기록화 참여는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기록화 대상인 개인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개인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한 관계 형성, 상호 존중의 관계 형성을 통해 개인 기록화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편견 없이 그 자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생애사 연구이다. 지금까지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소수

자, 여성, 장애인 등의 삶을 공감하는 속에서 잘못된 사회의 모습을 변화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은 전자적 시스템이나 기기의 기능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 기록물에 담긴 인간의 면모, 지속해야 하는 가치를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성과 가치는 개인 기록물에서만 느낄 수 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가치를 공감하며 존재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의미가 개인 기록물의 가치 판단을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위한 개인 기록화가 추진되어야 기록학이 사회 속에서 가치있는 학문으로 발전될 수 있다.

4. 생애사 연구방법을 반영한 개인 기록화 방안

개인 기록화는 개인 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나아가 기록화를 바탕으로 개인 아카이브나 기록관 설립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가치, 정신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개인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개인 기록물이 생산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개인 기록물이 파편으로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개인 기록물이 개인의 가치와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물인지 파악하고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 기록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개인을 연구하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한 기

록화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기록화 전략은 주제와 지역, 개인에 대한 사전 연구에 입각한 기록화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 방법론이다(한희동, 2013, p. 25). 기록화 전략의 핵심 요소는 기록화 영역의 분석, 기록물의 실재 여부, 필요한 경우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 계획을 여러 주체의 참여로 수행하는 방식에 있다(한희동, 2013, p. 24). 기록화 영역 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록화 할 것인가를 정하는 탐색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대상이 사건이라면 사건 분석, 기관이라면 기관의 기능 분석, 개인이라면 개인 생애사의 분석이 각 요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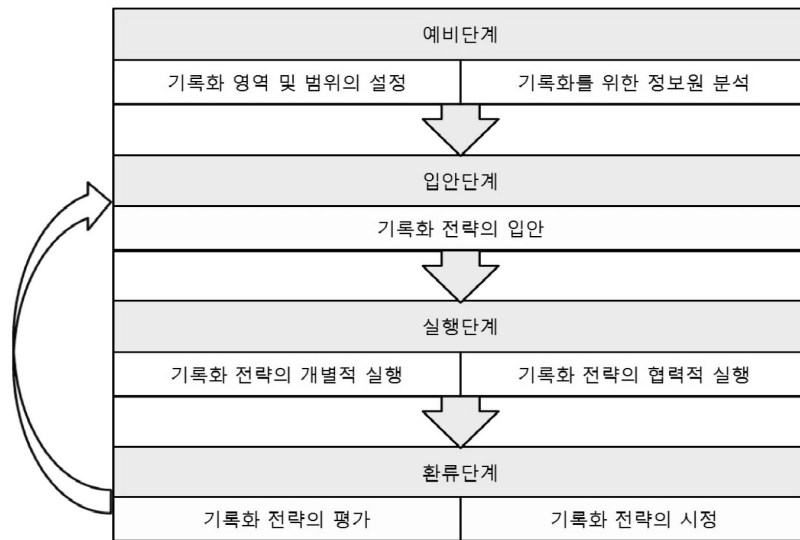
기록물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존재하는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기록물의 실재 여부를 조사하고 소장인(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 기록화 계획 수립에 있어 존재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사이에는 기록화 과정과 기록화 전체의 신뢰성에 큰 차이를 보인다. 존재하지 않는 기록물에 대한 가치 판단은 불가능하며 전체 기록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뒷받침할 수 없다. 더불어 개인 기록물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록물의 관리 및 점검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과정에서 분실 및 소실되었는지, 관리 측면에서 지원이나 활동이 존재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을 바탕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기록물이 생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양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록물의 실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어 생애의 파악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 기록화의 범위 설정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전환점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인의 생애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과 가치관이 변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생애 영역을 비교하여 어떠한 삶의 부분 혹은 삶의 전체가 기록화 범위로 설정할 만한 의미를 지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생애의 맥락과 관계를 통해 개인 기록물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산 배경을 바탕으로 개인 기록물을 추적하여 수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인간화의 특성을 통해 개인 기록물에 담긴 경험, 감성을 토대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애사 연구방법의 개인 기록화 반영은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사회 속에서 드러내기 위한 바탕을 형

성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기록화 과정에서는 예비단계에서 기록화 영역 및 범위를 설정하고 기록화를 위한 정보원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록화 영역 및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 '무엇을 기록화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기록화하고자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록물, 기록물 소장인(처), 기록물 수집을 위한 방법 등 기록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기초를 만드는 단계이다. 중요한 점은 기록화 영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한희동, 2013, p. 27). 이렇듯 거시적 관점에서 생애사 분석을 바탕으로 기록화 과정을 위한 관련 정보의 탐색과 계획 수립은 기록화하려는 부분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림 2〉 기록화 전략 과정의 일반 모형

출처: 김성일, 『기록화 전략의 일반모형과 그 적용』, 경남대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7, p. 32

4.1 기록화 범위 설정을 위한 생애사 연구방법 적용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 기록화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개인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 아카이브 또는 개인 기록화를 위한 생애사 연구는 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출생과 사망, 가족관계, 사회적 역할, 활동 분야 및 활동 조직이라는 단편적인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조로운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라고 볼 수 없다. 개인 기록화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파악뿐만 아니라 생애사 구성 요소의 적용과 사회문화적 상황과의 관계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시간과 역사적, 사회적 시간을 함께 놓고 생애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개인의 생애만 놓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때문에 두 시간의 축을 연계한 심층 분석으로 기록화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록화의 범위를 전체 개인의 생애에서 특정한 시기로 정하느냐, 전체 생애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말 그대로 특정 기간은 개인의 생애 중에서 일정한 기간을 기록화의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기록화의 범위를 특정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갖는 뚜렷한 가치 즉, 기록화 할 만한 가치를 일정한 기간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기간에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 분명한 메시지나

특성을 보이는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나 행위를 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할 때에 해당된다. 주로 일정 기간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짧은 기간에 뚜렷한 사회적 성과를 남긴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가능하다.

특정 기간의 설정은 개인의 생애를 여러 차원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했을 때 가능하다. 특정한 기간을 기록화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사실관계 보다 삶에서 보이는 서로 다른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다(김혜림, 2010, p. 45). 기록화의 범위 설정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의미를 대표하는 특정 기간의 개인 기록화가 보다 가치 있는 행위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기간을 기록화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미시적 가치의 발견과 개인 기록물 연구 영역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역이라는 분석 개념을 통한 생애의 파악과 기록화 범위 설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한편, 기록화 범위를 전체 생애로 설정하는 것은 적응의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적응은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조화나 극복을 통해 어떠한 삶의 과정을 겪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제 시기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사망한 개인의 전체 생애를 기록화 한다고 가정하자. 일제에 의해 억압받고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한 개인은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은 당시의 상황과 개인의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속에서 독립운동을 실천하기까지 개인이 가지게 된 생각과 행동 등의 변화 과정을 적응의 개념 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예는 일정한 기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보다 개인의 생애 전체에서 갖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큰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생애형의 기록화 범위 설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개인이 살았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은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각각의 조건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속하고 또한 실현해나가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특정 기간 설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가치와는 다르게 전체적인 시각과 생애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치이다. 그리고 거시적 시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 설정을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 생애를 두고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기록화의 목적과 판단 가능한 가치에 맞게 기록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기간이나 전체 생애를 개인 기록화의 범위로 설정하는데 있어 생애사 연구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이해를 돕는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애사 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개인 기록화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 과정, 사회적 활동, 전체 삶의 의미 등 기록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환점이라는 요소이다. 하나의 전환점을 통해서 행동양식이나 가치관이 변하게 된 원인과 양상,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전환점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이나 가치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변화 과정은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 즉, 생애 시간 동안 이루어진 행위와 경험을 통한 사회화의 내용을 확인 하

는 것이다(이희영, 2005, p. 130). 생애에서 확인 가능한 전환점을 기준으로 기록화 범위를 설정할 만한 가치가 어느 부분인지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영역이다. 영역은 개인의 생애를 몇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함으로써 다각적인 생애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기록화 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이해만으로는 어렵다. 명성황후의 예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고종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흥선대원군과의 대립, 새로운 문물과 개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 인물 등으로 이미지가 정형화 되어 있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생애를 영역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면 또 다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고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고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생애의 각 영역을 나누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동 양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록화 범위에 대한 가치 판단과 구체적 설정 가능하다.

생애사 연구방법을 기록화 범위 설정에 적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화 범위 설정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기록화의 목적은 기록화 범위 설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개인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의미가 기록화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기록화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이나 단순한 생애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기록화 범위로 설정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록화 범위 설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기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생애사 연구방법은 개인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기록화 범위를 설정하는데 특정한 시각이 반영될 수 없고 기록화 범위 설정이 개인의 삶에 근거를 둔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개인이 지니게 된 가치관과 행동 변화를 바탕으로 한 기록화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하나의 뚜렷한 가치를 나타내고자 하는가, 생애에서 나타난 가치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고자 하는가에 따라 기록화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전환점을 통한 가치관 변화의 원인, 과정, 결과, 그리고 영역 간의 비교를 통한 다양한 행동과 성격의 파악이 기록화 범위 설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만약 개인의 생애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개인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위한 것으로 생애사 연구가 진행된다면 기록화 범위 설정 자체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즉, 기록화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가치와 기록화 범위 설정이 서로 호응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한 기록화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개인의 생애는 지속적으로 반복된 일상생활이 이어져 하나의 완결된 흐름을 갖는 구조이다. 그 자체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기록화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통한 의미 발견에 주목해야 한다. 생애에 나타난 변화 양상과 관계 그리고 사회의 흐름이라는 두 가지의 축을 통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속에서 개인의 삶에 나타난 사회적 영향, 개인이

삶을 영위하고자 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기록화의 범위로 설정한다면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 기록화의 실행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이 지니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관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개인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근거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삶에서 지속해 온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토대로 사회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록물이 담고 있는 개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회와의 관계 이해가 의미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한 개인 기록화 범위의 설정은 체계적인 개인 기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바탕을 마련해 준다. 나아가 계획 단계에서 최종적인 개인 기록화의 결과가 편향된 시각으로 치우치거나 미화되는 것을 경계(이연창, 2007, pp. 13-14)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4.2 생애사 연구의 특성을 통한 기록물 조사 및 수집

기록화의 범위 및 영역을 설정하는 것과 함께 생애사 연구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개인 기록물을 조사하고 수집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정보원 분석에서는 개인 기록물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물 조사, 컬렉션 분석 등을 실시한다(김성일, 2007, p. 13). 기록물 조사는 개인이 생산한 혹은 개인과 관련된 기록물 중에서 실제 존재하는 기록물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에 관한 기록물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생산 목적에 맞게 정리하는 단계이다(남희숙, 2002, p. 28). 컬렉션 분석은 이미 수집되어 있는 기록물, 컬렉션을 분석하는 것으로 양적, 질적으로 수집된 기록물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수집된 소장 기록물을 대상으로 특성과 해당 컬렉션 속에서 기록물이 갖는 의미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남희숙, 2002, p. 28).

정보원 분석은 개인에 관한 모든 기록물을 대상으로 실존하는 수집될 기록물을 조사하고 이미 수집된 기록물을 확인, 파악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설정한 기록화 범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록물 리스트 작성의 활동(오명진, 2012, p. 40) 및 분석을 말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록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록물 조사에서는 생애사 연구방법 중 전환점과 영역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맥락'과 '관계'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개인 기록물을 탐색해야 한다. 기록물 조사 단계에서 맥락과 관계를 담은 기록물을 포착하여 기록화 목적에 맞는 평가,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컬렉션 조사를 통해 양적, 질적으로 기록물을 파악하는 것, 특히, 질적인 파악의 측면에서 개인 기록물이 개인 즉, 인간이 생산하고 만들어낸 기록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애사 연구방법의 특성으로 보자면 '인간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 기록물에 대한 질적인 파악은 사실 관계를 포함한 인간의 생각, 그 속에 숨겨진 감정 등 개인 기록물에 내포된 사실과 표방하는 의미를 깊게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

록물 조사와 컬렉션 분석은 정보원 분석에 필요한 도구들로 상호보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성일, 2007, p. 28).

각 전환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한다. 그리고 전환점을 포함한 영역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계기를 분석하고 생산될 수 있는 기록물을 예상한다. 이후 기록물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 방법, 물리적 위치, 시기를 확인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실존 기록물을 추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영역의 비교와 맥락, 관계의 특성을 통해 기존 컬렉션에서 담고 있는 기록물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기록물 조사는 실제 존재하는 기록물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어떻게 기록물을 추적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기록물이 생산된 시기와 위치(물리적 공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에서 찾고자 하는 기록물이 생산될 만한 상황과 시기에 대한 이해과정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생애에서 나타나는 사실과 의미의 맥락, 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생애의 흐름을 역추적하면서 해당 기록물의 내용과 생산에 관한 정보를 대입하여 찾는 것이다. 생애 흐름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고 단편적이라면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전체적인 생애의 흐름을 근거로 한다면 전반적인 기록물의 생산 및 존재와 추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컬렉션 분석은 이미 수집되어 있는 기록물을 분석하는 것으로 기존에 수집된 기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기 수집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기

록물에 대한 질적 측면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 기록화를 통해 기록물의 가치를 드러냈을 때 찾을 수 있는 의미를 판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어서 전체적인 기록물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 기록물을 실제로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선 기록물에 대한 사전 조사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 리스트 즉, 수집 대상 기록물을 선정한다. 그리고 기 수집된 기록물은 소장인(처)의 정보, 기록물의 종류 및 유형, 기록물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한다. 수집되지 않은 기록물은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다. 이후 대상 기록물 실사와 소장인(처)과의 접촉을 통해 수집에 대한 제반 사항을 협의 및 합의한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수집 계획을 종합하여 실행한다.

여기에서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각 단계에 맞는 생애사 연구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집 기록물을 선정하는데 있어 맥락의 특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 기록화는 수집된 기록물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그것이 개인 기록화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생애에서 의미있는 맥락이나 시간의 흐름, 변화 양상이 담긴 개인 기록물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카이브즈의 수집 정책이나 범주의 적합 여부, 수집되는 기록물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집 기록물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이은화, 2009, p. 68).

예를 들어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 기록물에 담긴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 과정을 파악했

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개인 기록화는 개인이 일정한 기간에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시기를 기록화 범위로 정하고 기록물을 수집한다고 가정하자. 생애사 연구를 통해 파악한 가치관의 변화 과정과 그 맥락이 사회적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었거나 사회적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면 그 개인 기록물을 개인 기록화를 위한 대상으로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맥락이 갖는 의미가 기록화 범위와 관련이 없거나 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면 기록화를 위한 수집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생애사 연구의 맥락 특성을 통해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것이 개인 기록화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수집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소장인(처)과 접촉 및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생애사 연구의 관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관계의 특성에서 두 번째 의미로 생애사 연구자와 생애사 연구 대상 간의 동등하고 협력적 관계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수집과정에서 말하는 관계의 특성은 소장인(처)과의 접촉 및 협의 과정에서 개인 기록물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 기록물이 관리되어 온 상황이나 법적 문제와의 관련 등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주변 환경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접근 권한의 문제나 활용을 위한 열람, 출판시 저작권의 문제 등 세부적인 요소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호 관계 설정에 있어 생애사 연구자는 일방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수탈자'가 아닌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특성은 기록물 수집의 주체와 소장인(처)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분석을 통해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인지하고 개인 기록화에 필요한 기록물을 선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 소장인(처)과의 접촉은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개인 기록화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수집하려는 기록물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체적 수집방법으로 기증, 위탁, 복제, 구매 중 어떠한 방법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두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집 계획 확정에 앞서 일련의 수집 계획이 수립 및 실행까지 이어지고 위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그리고 반영되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집하려는 개인 기록물을 선정하는데 있어 위에 제시된 맥락의 특성, 소장인(처)과의 접촉 및 협의에서 관계의 특성을 포함한 고려 요소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수집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참고하고 반영해야 하는 요소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화의 실행 이후 환류 및 피드백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반영한 개인 기록물 수집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맥락, 관계의 요소는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획 수립에서의 반영과 실행

이후의 검토 과정 적용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들이 반영된다면 수집과 기록화의 결과 차원에서 질적인 측면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수집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참여자들이 개인 기록화를 위한 풍부한 기록 수집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수집 이후에는 수집된 개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분류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인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활동, 행동 양식 등을 기준으로 기록물이 가지는 의미, 기록물간의 관계, 기록화의 목적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기록물이 생산될 당시의 질서, 기록물이 당시 사회와 갖는 관계 등을 반영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총체적인 개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 기록화에 생애사 연구가 가진 요소와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기록화에 필요로 하는 개인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아키비스트는 공공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그리고 아키비스트는 생애사 연구를 통한 개인 기록화에 있어 각 요소를 통한 개인 기록물의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기록물 조사와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5. 결 론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이케다 다이사쿠는 “인

간으로서 성실하게 끝까지 살아간 사람의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빛을 발한다.”(이케다 다이사쿠, 1996, pp. 33-34)라고 하였다. 인간이 지닌 가치는 삶을 살아가며 만들어낸 기록물에 담겨있다. 이러한 기록물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만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작업이 개인 기록화이다. 이 개인 기록화의 작업을 위해 구체적인 생애사 연구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본 글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둔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관계 파악, 사회발전과 소통을 위한 공론의 기회 제공, 사회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정신적 만족이라는 가치는 개인 기록물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전제는 개인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지속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록학에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개인의 생애에 근거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록학에서 다루어 온 생애사 연구는 기록물의 수집 및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략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왔다. 생애사 연구 적용을 통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개인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 기록물 추적을 통한 체계적인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생애에 바탕을 둔 분류체계를 형성하여 기록물의 의미, 관리,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수집과 분류체계의 형성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개인 기록물의 의미를 그대로 전승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기록물을 모으고 선별하여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기록화의 과정으로 기록화 대상에 대한 이해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개인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 주체인 개인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생애사 연구방법은 기존의 사회학, 교육학, 역사학 등의 많은 학문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즉,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한 개인의 이해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기록학에서 개인 기록화를 통해 개인의 가치를 지속하고자 할 때, 생애사 연구방법은 충분히 적용할 가치가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애사 연구는 출생과 사망이라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보다 가치관 변화의 기준, 변화양상, 삶의 궤적 비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개인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는 개인이 생산한 기록물의 다양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 기록물의 생산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수집하기 위한 추적 정보를 제공해준다. 당시의 사회에 대한 이해는 당시의 개인을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그리고 당시의 개인에 대한 이해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 될수록 인간이 지니는 가치는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개인 기록물의 가치 또한 중요해진다. 개인 기록물에는 개인의 가치관, 관점과 당시의

사회문화적 구조, 환경 등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어떠한 개인 기록물이 개인의 생각과 사회와의 관계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지 발견하고 선별하는 과정은 개인이 살았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당시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현재 우리가 지속해 가야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개인 기록물에 담긴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기록물의 생산

주체인 개인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기록물 연구와 기록화를 통해 개인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치의 공존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가치의 공존은 결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바로 이러한 힘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풍부한 가치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태환, 설동훈, 홍두승 (2009). 사회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 김범준, 구병두 (2007). 교육학개론. 공동체.
- 김성일 (2007). 기록화 전략의 일반모형과 그 적용.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김영천, 한광웅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 5-43.
- 김진용 (2013). 개인아카이브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 김형숙, 문지원 (2012). 미술 창의성 연구를 위한 생애사 방법론 고찰. 조형교육, 44, 65-94.
- 김혜림 (2010). 개인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연구 - 이승만 기록 통합 검색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제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 박성희 (2008). 생애사 연구와 노인교육의 의의. 한국교육인류학회-노년교육연구회, 1-21.
- 박성희 (2011). 생애사에 기초한 질적 연구방법. 원미사.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오명진 (2012). 동시대 역사적 사건의 기록화전략 -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 유철인 (1998).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 7(1), 186-195.
- 이기대 (2007). 명성황후 편지글. 다운샘.
- 이동성 (2013). 생애사 연구동향의 방법론적 검토: 세 가지 방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6(3), 47-82.
- 이동성 (2013). 생애사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에 대한 탐구. 초등교육연구, 26(2), 71-96.
- 이만영, 김수연 (1995). 생애사 해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 85-116.
- 이민원 (2007). 명성황후와 감고당. 동아시아연구소, 699-716.

- 이연창 (2007). 인물 기록관 구축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 배민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채수인 (2009). 민간기록물 수집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최영신 (1999). 질적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22.
- 최영주 (2005). 대학기록관의 개인기록관리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 한경혜 (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자료집.
- 한희동 (2013).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한 대학의 설립자 기록물 수집 방안: A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기록학대학원.
- Cook, Terry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7-63.
- Hobbs, Catherine (2001). The Character of personal Archives-Reflections on the Value of Records of Individuals. Archivaria, 52, 126-135.
- Pollad, Riva A. (2001). The Character of personal Archives: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Archivaria, 52, 136-15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ea, Su-In (2009). A study on the collecting system of private records. Master degree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Choi, Young-Ju (2005). A Study University Archives of Personal Records. Master degree thesi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 Choi, Young-Sin (1999). Collecting Qualitative Data.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16(3), 1-22.
- Han, Hee-Dong (2013). Acquisition Methods of University Founder's Records by Documentation Strategy. Master degree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Han, Kyung-Hea (2005). Life History Research through the biographical study.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 Kim, Beom-Jun & Goo, Beong-Doo (2007). Introduction to Education. Gongdongchea.
- Kim, Hea-Lim (2010).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Personal Archives. Master degree thesis.

-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 Kim, Hyoung-Suk & Moon, Ji-Won (2012). Life-History Research Method to Study Creativity in Visual Art. *Moulding Education*, 44, 65-94.
- Kim, Jin-Young (2013).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by Type of the Personal Archives. Master degree thesi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 Kim, Seong-il (2007). A General Process Model of Documentation Strategies and Its Application to Modern Korean Democratization. Master degree thesis. Ky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Yeong-Choen & Han, Kwang-Woong (2012). Story Research's Character and Meaning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Education Culture Study*, 18(3), 5-43.
- Kwon, Tea-Hwan, Seol, Dong-Hoon, & Hong, Do-Seong (2009). understanding of sociology. Dasan.
- Lee, Dong-Sung (2013). A Method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Life History Research Trend: Focused on Three Methodic Issues. *Educational Enthnology Research*, 16(3), 47-82.
- Lee, Dong-Sung (2013). Inquiry to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Analysis of the Life History Method.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26(2), 71-96.
- Lee, Eun-Hwa (2009). A Study on Personal Record Collections at Archives. Master degree thesi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 Lee, He-Young (2005). Life Story Research's Character and Meaning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Korea sociological*, 39(3), 120-148.
- Lee, Ki-Dea (2007). Letter of Empress Myeongseong. *Dawonseam*.
- Lee, Man-Young & Kim, Soo-Youn (1995). Empirical Research of Life Story Interpretatio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 85-116.
- Lee, Min-woon (2007). Empress Myeongseong and 'Kamgodang'. *East Asia Laboratory*, 699-716.
- Lee, Yeon-Chang (2007).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personal archives. Master degree thesis.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Oh, Myung-Jin (2012).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contemporary historical events. doctoral degree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 Park, Sung-Hee (2008). Life-History Research and Meaning of Elderly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Anthropology of Education-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Group*, 1-21.
- Park, Sung-Hee (2011).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ased on Life History.

Seol, Moon-Won (2010). Directions of Implement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Local Regions. *Archive Study*, 26, 103-149.

Yoo, Chel-In (1998). Life-History Research: data 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ext. *Nursing Science*, 7(1), 186-195.